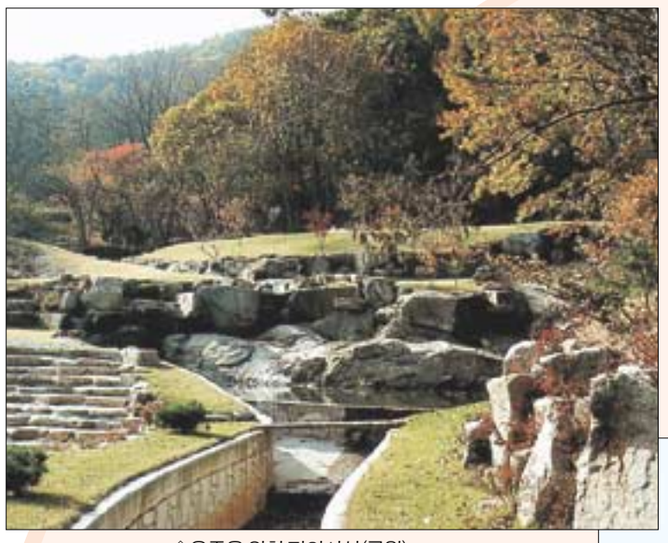
불교 전통추모시설

목련관

목련존자 원(願) 기린 영원한 영가 안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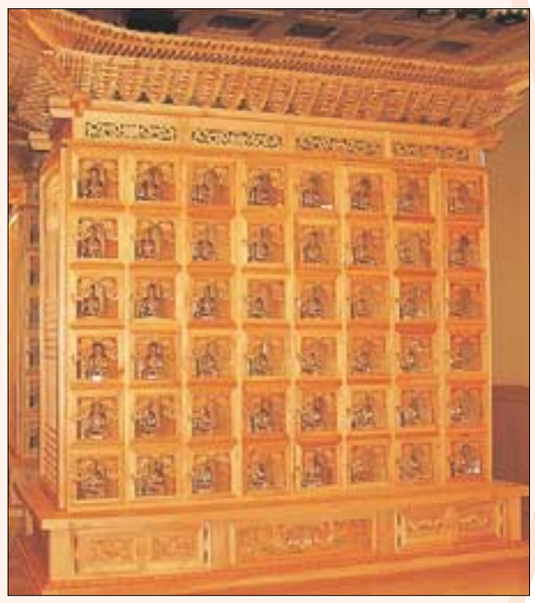


◇유족을 위한 편의시설(공원)

◇아미타불을 모신 목련관 법당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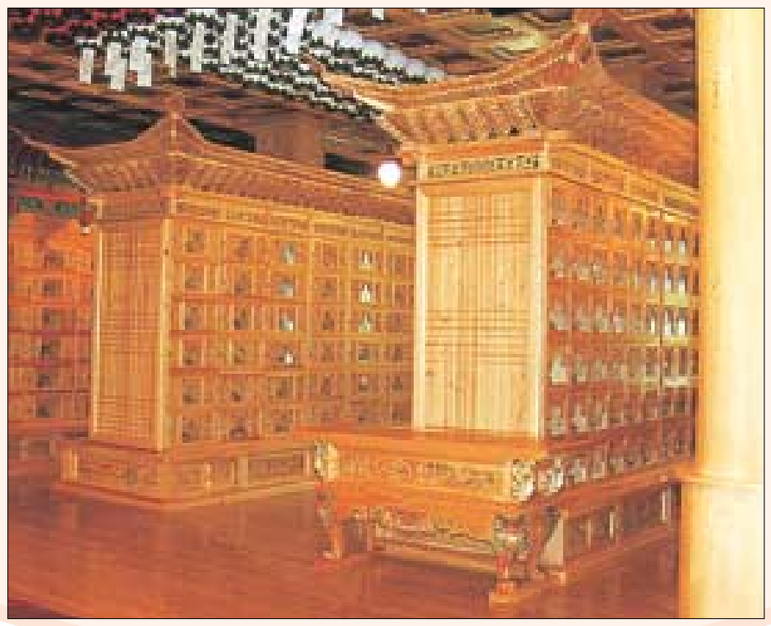
◇영탑

◇용학사 경내의 부도



◇추모단

◇목련관 사무실 전경



◇목련관 내부

◇유골함

‘대중속 불교’ 되도록 노력

이천 용학사 주지 혜봉스님

▲이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이시기도 한데요, 올해 계획은?

–이천 도자기 엑스포때 연합 연등행사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사암련은 회원들의 강한 결속력으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목련관은 일반 납골당과는 다른 각별한 추모시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효심과 스님들의 지극한 발원이 영원히 이어지는 불교전통 추모시설로 장기적인 계획아래 영가와 생존후손들이 함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복지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마야원이 대표적입니다만, 복지는 가족의 개념에서 전개될 때 완성된다고 봅니다. 무의탁노인은 집안의 할머니가 되고, 복지요원은 아버지 형님이 되고, 고아들은 자식으로 하나의 가족공동체로 구성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무간지옥서 고통받던 어머니 목련존자 효심으로 극락왕생

목련관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한 효(孝)행을 오늘에 기리고 본받아 영원한 영가 안식처로 조성한 납골법당 입니다.

왜 ‘목련관’ 인가?

목련존자는 출가한 이후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아귀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살생과 음주 등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고 그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력 7월보름 출가스님들이 모였을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과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존자가 그대로 행하자 마침내 어머니는 7월보름 지옥에서 해탈했고 이후부터 이날과 목련존자의 효행을 기려 우란분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목련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부모와 선망조상을 생각하여 이고득락하도록 공양을 올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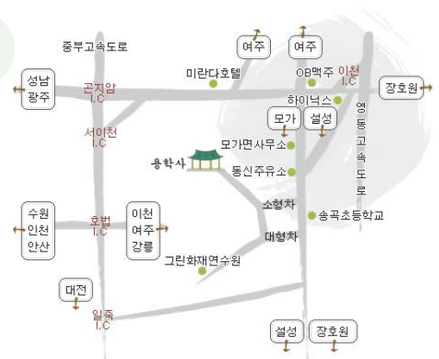
목련관에 납골을 안치하면 좋은점

▣극락세계 부처님이신 아마타불을 모신 법당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안치된 납골 모두는 매일 스님의 기도 염불을 듣게 됩니다.

▣시제사나 기제사를 절에서 저렴하면서도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습니다.

용학사 가는길



이천 교통요지의 영험도량 사회복지법인 마야원 운영

용학사는…

불교 전통 추모시설 ‘목련관’이 자리잡고 있는 용학사는 예로부터 재해 및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고장 이천의 유명한 기도 영험도량입니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상 남북의 중부고속도로, 동서의 영동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서울과 충주를 이어주는 국도 3호선, 수원과 여주를 잇는 국도42호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기도 합니다.

당초 용학사는 선덕사라는 이름뿐인 폐사지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여년전 현재 주지이신 혜봉스님의 인연으로 용학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혜봉스님은 20년전 만행길에 머물게된 지금의 용학사 산신각에서 정진하던중 비몽사몽간에 날개옷을 입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대웅전 우측 기둥쪽으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하도 신기해서 기둥을 만졌더니 갑자기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스님은 용학사로 중창하기로 원을 세우고 불사에 착수해 대웅전 산신각 극락전 범종각 등을 세워 도량의 면모를 갖췄으며, 사회복지법인 마야원을 운영해 복지불사도 펴고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469-4
전화 (031)632-4885, 634-5728